

MONTHLY BLOCKCHAIN NEWSLETTER

GIST BLOCKCHAIN ECONOMY CENTER
JUNE 2020



2020 Vol.2

Issued Date:
2020.06.01

정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비

_정부가 산업환경 형성 노력은
결실을 맺을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19 대비 한국판 뉴딜의 방향은?

_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를 위한 총력

공인인증서 폐지로 부상한 블록체인 기술

_제대로 된 블록체인 산업육성을
위한 해법이 필요하다

전세계 디지털화폐 각축전

_크립토 대다가 제안한 CBDC
2 단계 유통시스템

_위안화 가치 절하시킨 中,
디지털화폐 전쟁 승리 첫수되나

_페이스북 리브라, 연내 발행 의지
'활활'

중국 경제 디지털화 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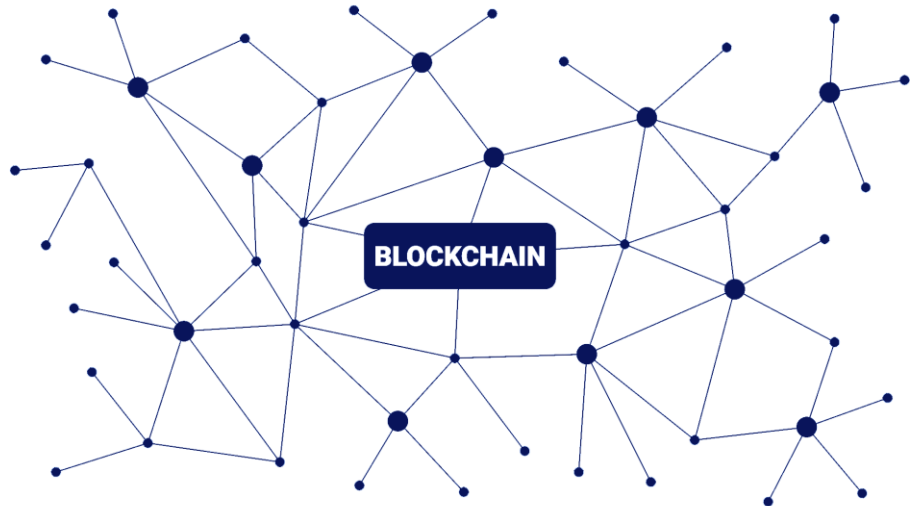
_리커창 '디지털경제'만 17 번 언급

_2021년까지 블록체인·핀테크 수용
가속화

GIST BEC

●● STATUS REPORT

GIST 블록체인경제센터는 GIST(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연구 자산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 기술과 블록체인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월 1 회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GIST 블록체인경제센터를 비롯하여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부, 학계, 연구기관, 기업들의 주요 동향과 연구·행사 소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미래차,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선박, 바이오 의학 등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에 블록체인이 필수 기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사용의 급증으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가 주목받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CBDC 를 개발 중에 있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중국은 연내에 디지털 위안화(DCEP)를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국과 격차를 줄이려는 중국판 디지털 뉴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과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중국 IT 공룡들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광주과학기술원 (GIST)

블록체인경제센터

(센터장 이흥노)

발행처: 대외협력팀

· 대외협력팀장 이명은(myungeunlee@gist.ac.kr)

· 선임연구원 권효민(hyominkwon@gist.ac.k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3 호

대표전화: +82-2-523-2997

홈페이지: <https://bceconomy.org/>
<https://infonet.gist.ac.kr/>

뉴스레터와 관련된 내용 문의가 있거나 뉴스레터 등록/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대외협력팀 이명은 팀장 (myungeunlee@gist.ac.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동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대비한 정부 부처 동향

● 금융결제원,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사원증 발급 (5.14)

- 금융결제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 직원 대상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모바일 사원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모바일 신분증 개발 지식을 금융회사에 적극 공유해 금융권 모바일 신분증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첫발 댄 금융 데이터거래소... '기대반 우려반' (5.12)

- 금융분야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데이터거래소가 5월 12일 본격 문을 열었다. 금융 외 통신과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데이터 제공사로 참여하며 현내 누적 거래량은 103건에 달한다(5.30 뉴스레터 작성일 기준). 거래소 개방으로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개방한 금융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 있는 공공기관 데이터들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섞어 혁신 서비스를 내놓을 여지가 생겨서다. 그러나 기대와 함께 우려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내 주요 통신사들과 금융사는 자체 빅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데이터거래소에서 양질의 데이터 등록과 거래가 유지될 수 있을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과기정통부, ICT 융합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마련 (5.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융합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헬스, 스마트팜 분야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헬스 및 스마트팜 표준 프레임워크는 유망서비스 활용 시나리오와 이에 필요한 표준(안)을 분석·제시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주치의 서비스, 원격환자 모니터링, 알고리즘 기반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등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기부, '비대면경제과' 신설 (5.22)

- 중소기업벤처부는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분야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부처 최초로 '비대면경제과'를 오는 25일부터 설치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비대면경제과'는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활성화와 자연·문화·역사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비대면 분야 활성화 종합 전략을 수립, 지원하게 된다. 중기부는 해당 과를 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6개월간(필요시 6개월 연장, 최대 1년) 긴급 대응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KISA “일상에 스며드는 블록체인, 국민과 함께 만든다” (5.29)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록체인 시범사업 과정을 국민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20년 블록체인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단원으로 선발되면 블록체인 시범사업 개발과정 모니터링, 서비스 개선사항 도출 및 의견 제시 등과 함께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회전반으로 확산하는 SNS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심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12일까지 접수를 받은 8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 서울시 무대로 혁신기술 실증 기업 최대 5억 지원 (6.1)

- 서울시는 혁신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지하철, 도로 학교 등 각종 시설물과 현장에서 최장 1년간 테스트할 기회와 최대 5억원의 실증 사업비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에 참여할 기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테스트베드 서울은 실증장소, 비용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만 참여가 가능한 R&D 지원형과 비용지원없이 실증 장소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한 기회제공형이 있다. 서울시는 IT 로봇·드론 블록체인·핀테크 마케팅·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로 구성된 200명 내외의 '혁신기술 지원단'을 통해 실증 기업 대상 분야별 맞춤형 전문 컨설팅 또한 제공한다.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경제정책, '한국판 뉴딜'

● 장석영 2차관, 한국판 뉴딜 민간전문가 간담회 개최 (5.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2차관은 5월 19일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 대한 민간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통신, 기술정책,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디지털 분야의 학계,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저성장 극복,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한국판 뉴딜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 문 대통령 “한국형 뉴딜, 디지털 인프라 구축” (5.10)

- 문재인 대통령은 5 월 10 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 주년 특별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의 3 대 경제정책 방향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대신, ‘한국판 뉴딜’, ‘선도형 경제’,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 등을 꺼내 들었다. 코로나 19 국면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코로나 이후 경제정책에 집중해 ‘추격형 경제’ 구조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내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내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 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은 5 월 21 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며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미래차,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선박, 바이오 의약 등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정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모두 내년 예산안에 담는다 (5.19)

-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5 월 19 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 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2021 년 예산 편성을 위한 ‘2020 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원격 화상회의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 그린뉴딜 핵심은 ‘공공시설·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추경에 3 천억

- 청와대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아파트 8 만 호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등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당장 3 차 추경에 3 천 억 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단기간에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TF 를 구성하여 그린 리모델링 사업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며 건축 연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건물에 대해 신청을 받아 컨설팅과 시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21 년만에 퇴장... 대체 인증 각축전

● 공인인증서 시대 끝?...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냐” (5.29)

- 5 월 20 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의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외 사설인증서도 똑 같은 효력을 인정받게 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진다. 그간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 대 국회에서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석영 과기부 2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효력은 오는 11 월부터 발생한다.
-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동통신 3 사(SKT · KT · LGU+)와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은 본인인증 앱 패스(PASS)를 만들었다. 카카오도 메신저 이용자들의 넓은 저변을 이용해 빠르게 인증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의 전자 서명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지난해 출시한 بانک사인은 여러 은행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로그인 간편하며 인증서가 3 년 간 유효하다. 그러나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와 ‘공인’이라는 표현은 바뀌었으나 여전히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뒷받침할 여지는 있다.

블록체인 산업, 앞으로의 향방은?

● 윤미향 논란부터 공인인증서 폐지까지... 몸값 높이는 ‘블록체인’ (5.19)

- 최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둘러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유용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블록체인 솔루션이 반대급부로 주목받고 있다. 회계 투명성 부재가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부금 집행내역을 원천 추적해 투명한 공개가 가능한 블록체인 솔루션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 인증에 대한 블록체인 접목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인인증서가 21 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블록체인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 돈 줄 마른 블록체인 산업... “신규 투자 없어, 프로젝트 고사 직전” (5.19)

- 코로나 19 사태로 비대면 관련 인프라에 대한 신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역시 언택트 시대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자금 조달을 방해하는 규제로 투자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5월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산업 투자 배수는 2017년 26.1배에서 2018년 11.5배, 지난해에는 11.4배로 크게 급감하며 식어버린 투자 심리를 방증했다. 이에 반해 언택트 시대 또 다른 핵심 기술로 꼽히는 클라우드 투자는 2017년 6.1배에서 2018년 7.4배, 2019년 20.6배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 “이더리움 등 외산 플랫폼 종속 우려”... 국산 기술개발 절실 (5.27)

- ETRI 블록체인기술연구센터 오진태 책임연구원과 김기영 센터장은 실제 노스증명(PoN)을 통한 블록체인 서비스 사업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 책임연구원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이 이더리움이나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외산 플랫폼에 의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이는 플랫폼 종속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 우려했다.

● 대한민국 직업 종류, 8년 간 5,236개 늘었다 (5.29)

-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장 직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직업을 집대성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을 발간했다. 이는 1986년부터 발간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직업정보서로 이번 통합본 제5판에는 총 16,891개 직업이 등재됐으며 2012년 발간된 제4판(조사년도: 2003-2011)에 비해 5,236개가 늘었다. 새로이 등재된 신생 직업은 주로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 발전 ▲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 ▲전문화 등 사회환경 변화 ▲정부 정책 등 제도변화에 따른 것이 많았다. 디지털화 및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빅데이터 전문가, 블록체인 개발자, 인공지능엔지니어, 드론조종사, 디지털문화재복원전문가 등이 새로 나타났다.

● 람다 256, 80억 규모 투자 유치... 종근당·야놀자·우리기술투자 참여 (6.1)

-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의 운영사인 ‘람다(Lambda)256’은 우리기술투자, 종근당홀딩스, 야놀자 등 주요 벤처캐피탈과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총 80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였다. 람다 256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겪는 개발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를 상용화했다. 이번 시리즈 A 투자자들은 BaaS라 불리는 루니버스 플랫폼 기술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또한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야놀자와 종근당은 BaaS 기반 루니버스 DID, 포인트 등 응용 서비스의 고객이자 공동개발 파트너이기도 하다. 고속성장중인 블록체인 클라우드 시장에서 루니버스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해외 동향

美·中 디지털 화폐 패권 다툼 본격화

● 전세계 디지털 화폐 각축전, 열혈 연구하는 중국의 속내 (5.19)

-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 발행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가장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중국의 속내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디지털화폐를 조기 도입해 돈의 흐름을 철저히 통제하고, 미국의 달러패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 암호화폐 대디가 제안한 ‘CBDC 2단계 유통시스템’...원지 살펴보니 (6.1)

- 디지털 달러 홍보 비영리단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는 2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발행되려면 ‘두 단계의 유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는 ‘크립토 대디’로 불리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이 주도하는 단체이다. 백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하위 은행에 디지털 달러를 발행한 후 사용자들이 디지털 달러를 계좌에 넣거나 디지털 지갑에 옮기는 시스템을 언급, 현재의 유통구조와 관련된 경제적·법적 이점을 보존하면서 혁신을 유도하는 방법이라 설명했다. 백서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완성되기까지 5~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 페이스북 리브라, 연내 발행 의지 ‘활활’...글로벌 리스크 지렛대 삼기 (6.1)

-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리브라’가 연내 발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4월 각국 법정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겠다는 새로운 백서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페이스북숍스’와 리브라 연동 방안이 공개돼 프로젝트 밑그림이 하나둘씩 올라오는 중이다. 일각에선 올해 코로나 19 사태, CBDC(디지털화폐) 급부상,

미중무역전쟁 심화 등 각종 글로벌 이슈들이 리브라 관심도를 크게 떨어뜨린 만큼 페이스북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한다는 목소리다.

- 페이스북숍스는 지난 19 일 첫 공개됐다. 앱 하나에 쇼핑과 결제, 배송 추적까지 가능한 쇼핑 원스톱 솔루션을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 19 로 촉발된 전 세계 언택트(비대면) 트렌드에 발맞춰 시장 수요를 붙잡겠다는 의지다. 페이스북숍스는 향후 음식 주문 및 배달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라 우버이츠와 그럽허브 등의 음식배달 앱 업체들도 겨냥하고 있다. 최근 카페 24 는 국내 업체 중 가장 먼저 페이스북숍스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 지난 27 일 리브라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자회사 칼리브라(Calibra)를 '노비'(Novi)로 바꾼 것도 리브라 발행 의지의 연장선이다. 리브라 프로젝트와 칼리브라를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이 상호 변경의 주된 이유라 밝혔지만 과거의 칼리브라가 블록체인 솔루션 등 기술적 분야에 치중했다면 노비는 가상자산 금융서비스의 진출을 총괄하는 정책적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다. 리브라연합은 4 월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 공식 설립 절차를 끝마쳤고 스위스 금융당국에 결제 시스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도 낸 상태다.

● IMF 부책임자 “민간 참여한 ‘합성 CBDC’ 더 혁신적”, 왜? (5.27)

- IMF 토마스 만치니 그리폴리 화폐 및 자본시장 부책임자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합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합성 CBDC 는 민간협력(PPP) 방식으로 개발되며, 공급업체가 발행한 e-머니에 대한 책임을 중앙은행이 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합성 CBDC 의 경우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유통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소매 결제에 활용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화폐 혁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의 경쟁력과 중앙은행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면서 적절한 규제를 적용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강조했다. 한편 영국과 중국 중앙은행도 CBDC 발행과 관련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언급했다.

● 위안화 가치 절하시킨 中, 디지털화폐 전쟁 승리 위한 첫수 되나 (5.27)

-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중국 위안화 환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에 맞불을 놓은 격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 틈을 타 위안화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무기 삼아 미국 위상을 넘보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장기적으로 중국 DCEP 까지 확장해 국제적 입지를 높이고 글로벌 디지털화폐 시장을 선점해 미국처럼 기축통화 지위를 누리려는 전략이다.

● 中 중앙은행장 “디지털 화폐 테스트, 정식 발행 의미하지 않는다” (5.26)

- 중국 인민은행 은행장 이강은 “지금까지 DCEP 의 시범 테스트가 진행 중이지만 이는 개발 과정의 일반적인 작업일 뿐이며 정식 발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이 은행장은 이어 “DCEP 연구 개발 작업은 ▲안전 ▲제어 가능 ▲혁신 ▲실용 등 원칙에 따라 선전, 쑤저우, 충안, 청두 지역과 동계 올림픽 장내 모의실험에서 내부 테스트용으로 수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이론적 신뢰성, 시스템 안정성, 기능 이용가능성, 프로세스 간편성, 리스크 제어가능성 등을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 “한국 등 4 대 아시아 통화 기반 CBDC 발행하자”... 중국 양회서 나온 제안은? (5.22)

-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 참석한 중국 정계 고문들이 4 대 아시아 국가의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을 제안했다. 한국 원화, 일본 엔화, 홍콩 달러, 중국 위안화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는 것이 주요 제안 내용이다.

● 중국, 암호화폐의 법적 상속 가능해져 (5.29)

-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유산에 포함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총회에서 상속, 결혼, 재산, 인격, 계약, 시민권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새로 통과된 민법은 특히 ‘상속’ 부문에 있어서 ‘유산’의 범위를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개인의 법적 재산’ 이라고 명시하고, 이 ‘유산’에는 소득, 주택, 산림, 저작권 등의 기존의 법적 재산이외에 인터넷 자산과 가상 자산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 중국에서는 지난 4 월 선전시 푸티안 법원이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을 판결하며 이더리움을 ‘재산’으로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고, 지난 5 월 6 일 상하이 제 1 중급인민법원 역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어 ‘재산의 구성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하는 등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개정된 중국 민법은 오는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중 공산당 교육기관, 암호화폐 서적 발간...“현 통화시스템 하락세 내용 담겨” (5.20)

- 중국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인 중앙위원회가 암호화폐 서적을 발간했다. 최근 중국 당국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신간은 관계자들과 시민들에게 관련 동향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중국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 임원, 금융감독 당국이 참여했다. 명목화폐의 기원과 역사, 현재의 신용 통화시스템과 현 시스템의

하락 추세, 암호화폐의 움직임과 비트코인 탄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 CBDC 첫발 뎀 프랑스..."디지털 유로 첫 테스트 진행" (5.21)

- 14일 프랑스 중앙은행이 유럽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유로' 테스트를 완료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향후 몇주간 CBDC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은행 간 디지털 유로를 전송하는 것도 테스트에 포함된다 밝혔다. 테스트 중인 디지털 유로는 소매용보다 도매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 "CBDC, 비트코인 대체 못해"...그레이스케일 보고서 내용은 (5.28)

-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CBDC와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는 관점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CBDC는 암호화폐의 고유 성격인 '탈중앙화'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CBDC의 경우 법정화폐의 디지털 버전으로 화폐 고유의 특성을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을 개선한 CBDC와 달리 비트코인은 화폐 자체를 업그레이드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 비자, '디지털 법정화폐 발행 시스템' 특허 출원(5.19)

- 글로벌 지불결제 업체 비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지폐나 동전으로 발행된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특허 출원서에선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 화폐가 디지털화 되면 액면가와 일련번호가 그대로 적용돼 완전히 똑 같은 디지털 버전의 법정화폐로 탄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 발행된 종이화폐는 더이상 유통될 수 없게 폐기되며, 디지털화폐의 생성과 기존 화폐의 폐기는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특허 출원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달러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현금을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

● 텔레그램, 그램(Gram) 토큰 판매금지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5.26)

- 최근 블록체인 프로젝트 '텔레그램오픈네트워크(TON)' 개발 중단을 선언한 텔레그램이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그램(Gram)'의 발행·판매금지 판결에 대한 항소도 포기했다. 텔레그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미국과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Gram 토큰 발행을 금지한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18년 텔레그램은 프라이빗 토큰세일을 통해 17억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모금하고, TON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작년 10월로 예정됐던 TON 출시는 SEC의 긴급조치로 진행되지 못했다. SEC는 텔레그램의 토큰세일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와의 소송이 시작된 텔레그램은 투자자 동의를 구해 올해 4월로 TON 출시를 미뤘다. 텔레그램은 법적공방 와중에도 테스트 월렛, 합의 알고리즘 '캣체인' 등을 공개하며 기술개발과 출시 의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TON 월렛 앱과 텔레그램을 분리하는 등 규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애썼다. 하지만 지난 3월 24일 뉴욕남부지방법원 케빈 카스텔 판사는 텔레그램에 대한 SEC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Gram 토큰 발행 및 판매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중국, 디지털 경제 속도낸다

●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국과 격차 줄이려는 중국 (5.29)

- 코로나 19 사태 이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분야는 첨단 신기술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22일 발표한 양회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효율적인 투자 확대 부문에서 신형 인프라 건설, 차세대 정보 네트워크 개발, 첨단 신형 도시 개발 등에 업무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신형 인프라 투자의 중점항목은 5G를 비롯해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다.
- 중국의 신기술 분야 도약에 첨단 IT 기업들은 든든한 지원군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코로나 19로 중국 경제가 휘청였던 지난 4월 향후 3년동안 데이터센터 등 클라우드 관련 인프라 확충에 약 34조 462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IT 공룡인 텐센트는 지난 26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앞으로 5년간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약 86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약속했다.

● '디지털경제'만 17번 언급한 리커창...코로나 19로 디지털경제 '속도' (5.25)

-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경제'라는 단어를 17차례나 언급했다. 그만큼 올 한해 중국 지도부가 '디지털 중국' 건설에 역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중국 지도부가 디지털경제로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디지털경제 발전 및 일자리 백서(2019년)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디지털경제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 中 금융기술위원회의 개최, “2021년까지 블록체인·핀테크 수용 가속화할 것” (5.14)

- 중국인민은행 금융기술위원회가 13일 개최됐다. 중국중앙은행 부총재 판이페이(Fan Yifei)가 제휴 업체 리더들과 회의를 가졌다. 판 부총재는 블록체인과 핀테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1년까지 국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수용 전략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를 통해 중국인민은행과 업계는 “빅데이터와 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을 비롯한 기술을 빠른 디지털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 “블록체인 개발기금 마련한자”...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서 나온 제안은? (5.25)

-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탄 지칭(Tan Jieqing) 부대표는 최근 연례회의에서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기금 지원’을 제안했다. 중국 내 유망한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탄 부대표는 “현재 (중국에서) 규제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이 많다”며 “부족한 인재와 정보가 양질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트렌드

● 세계경제포럼, 생태계 참여자 위한 ‘블록체인 권리장전’ 초안 발표 (5.25)

- 세계경제포럼이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산업이 지켜야 할 주요 원칙을 공개했다. 세계경제포럼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공공·민간 부문을 혁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전세계 보안·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도 “적절한 참여자 보호방안을 갖추지 않는다면 혁신 기술도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블록체인 권리장전 수립배경을 설명했다.
-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개발 원칙은 ▲투명성과 접근성 ▲기관과 상호운용성 ▲프라이버시와 보안 ▲책임성과 거버넌스로 네 부분,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해당 항목들은 ▲이용자가 서비스 운영방식을 고지받을 권리 ▲데이터 수집 및 이용범위를 제한할 권리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 ▲국제 공인기술 보안표준에 따라 데이터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원칙에는 콜롬비아 정부, 딜로이트컨설팅, 컨센시스, 일렉트릭코인컴퍼니, 코인세어스, 유엔세계식량기구 등이 서명했다.

● 포브스, “포스트 팬데믹 시대 블록체인 트렌드 6가지” (5.25)

- 코로나 19 확산 가운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조명받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부문이 팬데믹 이후 성장 가도를 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FTI 테크놀로지 수석 총괄인 스태브 맥뉴는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를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나타날 미국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양상 6가지를 제시했다.

1. 암호화폐 입법 활동 증가...법률 제정까지는 어려울 것
2. 공공 금융 서비스 구현: 포괄적가치장부(IVL) 디지털결제 시스템 법안 추진에 따라 뉴욕주 내 거래 가능 전자통화 및 최초 공공 개념 디지털경제 플랫폼 구축 움직임 본격화
3. 국가 간 블록체인 네트워크
4. 금융 분야 블록체인 서비스 도입 가속화
5. 기업용 블록체인 투자수익률 향상
6. 사기 문제 계속될 것으로 예상

●● GIST 블록체인경제센터 소식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 게재] ASIC 저항성을 위한 ECCPoW 블록체인 구현 방법 (제 18 권 5 호)

[언론보도] 이흥노 교수 연구팀, 파장 간섭과 수학적 최적화를 활용하여 4배 향상된 초음파 이미징 기법 개발

●● 관련 연구 동향/도서 발간

‘코로나와 4 차 산업혁명이 만든 뉴노멀’ (저자: 이종찬), 5.29. 발간

1. 영화가 현실이 된 코로나 팬데믹
2. 코로나와 4 차 산업의 뉴노멀들
3. 뉴노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
4. 뉴노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의 서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Xangle) 5.28. 발간

‘코로나 19 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술’ (서울디지털재단), 5.27. 발간

1. 들어가며
2.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
3. 사회복지 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
4. 교육문화 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
5. 산업경제 분야의 디지털 기술 활용
6. 나가며

‘글로벌 기업과 주요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25. 발간

1. 서론
2.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출시(계획) 현황
3. 주요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계획) 현황
4. 결론

●● 주요 행사/사업일정

월	화	수	목	금
6/1 2020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공고	6/2 클라우드 2020	6/3	6/4	6/5
6/8	6/9	6/10 코로나 위기와 금융권 대응 (한국금융연구원)	6/11	6/12

참고자료

금융결제원,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사원증 발급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14000325>

다음달부터 블록체인 ID로 금결원 출입한다

(코인텔레그래프) <https://kr.cointelegraph.com/news/starting-next-month-korea-financial-telecommunications-and-clearings-institute-will-enter-with-a-blockchain-id>

첫발 땀 금융 데이터거래소... '기대반 우려반'

(Digital Today)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19>

과기정통부, ICT융합서비스 표준 프레임워크 마련

(디지털데일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1901072430126001>

KISA "일상에 스며드는 블록체인, 국민과 함께 만든다"

(파이낸셜신문) <http://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869>

서울시 무대로 혁신기술 실증 기업 최대 5억 지원

(뉴스레프)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03>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기부, '비대면경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2645&pWise=sub&pWiseSub=B12>

장석영 2차관, 한국판 뉴딜 민간전문가 간담회 개최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519010009721>

"한국형 뉴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산업 일자리 창출

(동아)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11/100983645/1>

정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모두 내년 예산안에 담는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38575>

문 대통령, "디지털경제 강자로 거듭날 것... 한국판 뉴딜 신속 추진"

(청와대)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2626&pWise=Letter>

공인인증서 폐지 논의 '급물살'... 블록체인 등 전자서명 기술 부각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85005>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퇴장... 대체인증 '3파전'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1901072430126001>

공인인증서 시대 끝?...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냐"

(파이낸셜투데이)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81>

과기정통부, 스마트헬스스마트팜 개발 청사진 제시한다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72741>

윤미향 논란부터 공인인증서 폐지까지... 몸값 높이는 '블록체인'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00519010005178>

돈 줄 마른 블록체인 산업... "신규 투자 없어, 프로젝트 고사 직전"

(뉴스웨이)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0051914252580795>

대한민국 직업 종류, 8년간 5,236개 늘었다

(중소기업뉴스)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67964>

[블록인터뷰] "국산 블록체인 확보, 실증할 기술개발 예산 시급"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30313>

80억 시리즈A 투자 유치한 람다256...우리기술투자증권당아놀자 참여

(블록프레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34204>

전세계 디지털 화폐 각축전, 열혈 연구하는 중국의 속내

(뉴데일리경제)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9/2020051900148.html>

크립토 대다가 제안한 'CBDC 2단계 유통시스템'..원지 살펴보니

(블록인프레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34176>

페이스북 리브라, 연내 발행 의지 '활활'... 글로벌 리스크 지렛대 삼기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00531010008599>

위안화 가치 절하시킨 中, 디지털화폐 전쟁 승리 위한 첫수되나

(IT조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6/2020052603829.html

中 중앙은행장 "디지털 화폐 테스트, 정식 발행 의미하지 않는다"

(블록미디어)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40771>

IMF 부책임자 "민간 참여한 '합성CBDC' 더 혁신적", 왜?

(블록인프레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33967>
“한국 등 4대 아시아 통화 기반 CBDC 발행하자” ...중국 양회서 나온 제안은?

(블록인프레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33695>
중국, 암호화폐의 법적 상속 가능해져

(블록체인투데이) <http://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23>
“CBDC, 비트코인 대체 못해”...그레이스케일 보고서 내용은

(블록인프레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34076>
중 공산당 교육기관, 암호화폐 서적 발간...“현 통화시스템 하락세 내용 담겨”

(블록인프레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33565>
CBDC 첫발 댄 프랑스...“디지털 유로 첫 테스트 진행”

(블록인프레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33591>
비자, ‘디지털 법정화폐 발행 시스템’ 특허 출원

(ZDNet Korea) <https://www.zdnet.co.kr/view/?no=20200519112738>
텔레그램, 그림 토큰 판매금지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코인리더스) <http://coinreaders.com/7445>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국과 격차 줄이려는 중국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2911534285984>
‘디지털경제’만 17번 언급한 리커창...코로나19로 디지털경제 ‘속도’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0525132940649>
中 금융기술위원회의 개최, “2021년까지 블록체인·핀테크 수용 가속화할 것”

(CCTV뉴스)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44>
“블록체인 개발기금 마련하자”...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서 나온 제안은?

(블록인프레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33771>
세계경제포럼, 생태계 참여자 위한 ‘블록체인 권리장전’ 초안 발표

(코인리더스) <http://coinreaders.com/7440>
포브스 기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 블록체인 트렌드 6가지”

(토큰포스트) <https://www.tokenpost.kr/article-35069>
‘코로나19 대응하는 세계의 자세’...서울디지털재단, 디지털기술 활용사례 분석

(CCTV News)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69>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만든 뉴노멀’ 출간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115>
